

# 현대불교

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직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처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인동식물재배 사업제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0595)83-9665 / 83-3478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광삼 / 편집인: 김광삼 / 논설위원: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구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3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7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의 공덕은 한량없이 크다 (금강경)

## 법회 안내

- 성통사** (02)336-2052
- 일반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 경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학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 염불사** (02)938-9395
- 신중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 관음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백통사** (02)738-2806
- 경가법회 오전10시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 보살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 대전 대승심인당**(042)282-5818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지장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자녀불사법회 매주 일 오후7시
- 전남 송광사 포교당** 857-2328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 지장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 참관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머리속여 사죄합니다

폐사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매주 '현대불교'를 애독자 여러분께 우송해드리는 우편발송 대형 업체입니다. 하온데 지난 5월31일자 '현대불교' 30호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우편번호 100-) 독자님들께 엉뚱한 내용물을 우송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현대불교신문사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고 애독자에게도 누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폐사는 이번 실수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제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정 포장DM 대표 양순철 올림

# “열린교육 불자교사가 맡겠다”

### 중앙불교교육원·송광사등서 수행법회...인성개발 주력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성남중의 한 교실 뒷편에는 ‘이런 삶’이라는 화보와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 있다.

불교의 오개구는데 살생을 금하는 이 내용은 담담 박정현 교사가 실천행이 담긴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박교사는 매주 ‘이런 삶’의 내용을 바꾼다. 어린 학생들의 심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불교경전을 현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교사가 경전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교사불자들의 모임인 교사수행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중앙불교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이 3년전부터 주관하는 수행법회는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정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법회다.

장년퇴임을 앞둔 교사부터 신입교사에 이르기까지 50여명의 교사들이 동참하는 수행법회는 교사가 아닌 교육생이 되

어 참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된다. 지난 2일, 서초정토법당에서 열린 수행법회는 동료교사의 지도로 집단상담인 촛불의식이 거행됐다. 학생으로 돌아간 교사들은 한사람씩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불자교사들은 이렇게 체득한 체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돌아오면 학생들의 고민을 부담없이 들어주고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교사수행법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선 명상 혼화자료집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곤 한다.

지난달 31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인교육으로 바꾸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불자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불자교사들이 법회에서 펼쳐왔던 것을 이제야 인정을 받은 듯 하여 보람을 느끼며 개

척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사수행법회를 지도하는 덕생법사는 “불교적 소양을 갖춘 교사 한명은 수많은 청소년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교사수행법회는 종교를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경전속에서 열린 교육을 찾는 곳은 중앙불교교육원뿐만이 아니다. 시한부 출가로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송광사 여름수련법회는 특별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송광사는 금년에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26회째 교사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또한 경주 고불선원도 교사불자회를 운영, 어린이 청소년 등의 인성교육을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속에 충만해 있는 불교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교사들의 열기가 뜨겁다. (김중근 기자)



◇지난 1일 이택순 중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재방문, 한동노조간부들에 대한 법집행 의사를 밝혔으나 조계종 호법부장 해창스님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 “정부·노사 대화로 풀어야”

### 조계종, 한동사태 중재에 적극 나서

조계종이 한국통신 노조문제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낮 12시와 오후 3시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과 중앙종회의원 46명은 ‘한동사태에 대한 조계종의 중재결과 중간발표’ 기자회견과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노사 양측과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시현스님과 중앙종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조계종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앞으로로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30분 시현, 해창스님은 진법 노동부장관을 방문하고 종단과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진법 장관은 법철차의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오후 8시 이택순 중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 목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교계에서 열리는 만찬 또는 기념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이다.

먼저 원로 중진비구 스님들과 단체장 거수들이 소개되고 여성인사들도 호명된다. 그런 자리에서 원로 비구니스님들의 법명이 잘 쟁겨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교계에는 ‘팔경계법’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비구니가 비구에 대해 지켜야 할

## 비구니 스님들의 자리

8가지 범중에서 가장 대표적 인 것은 1백세의 비구나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일어나서 정좌(淨座)에 앉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 법이 부처님 말씀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보다 ‘싫어선지 섭섭한 내색을 하지 않고 여려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수행하고 포교하는데 있어 비구니스님들과 한치도 다를 없다.

비구니스님들은 ‘그러려니’ 하는 자세로 임해 왔다. 어느 자리든 비구니스님들과 함께 하는 곳이면 으레 한발 뒤로 물러선다. 실사 행사중의 내빈 명단에서 제외돼도 ‘그러나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비구·비구니가 동등한 수행인이고 성직자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팔경계법에 ‘젓은 관습때문에 재가인사들까지

##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전화: 737-8881, 722-4162

팩스: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북녘에 부처님 말씀 띄운다 18면 금주 20면 발행

# 키아 커졌다

## 뉴-세피아 탄생!

이제 중형의 느낌으로 타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놀랄만큼 달라진 스타일, 대폭 강화된 안전시스템으로 — 뉴세피아 '95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新미연방안전기준(FMVSS)을 적용하여 무려 570여 가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스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 풍위있는 전면 스타일을 연출해 주는 본넬리안과 후론트 범퍼
- 국내최초로 인계통, 콕비 캠퍼가 내장된 일체형 고정도 헤드램프
- 볼륨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감각의 리어 피니셔와 리어 콕비램프
- 여유롭고 편리한 드라이브를 도와주는 일체형 대쉬보드
-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도난방지 기능을 추가한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선택)
- 새로운 디자인의 로터리 질판 타입의 고성능 에어컨(선택)

**안전이 더욱 커졌습니다.**

- 충격에 대한 강도가 대폭 향상된 직선일체형 T형 범퍼의
- 충돌시 1차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한 전면 판넬
-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 도어 임팩트브
- 사용 비용을 절감해 주는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킨 고정력 강판
- '95년부터 적용되는 新FMVSS 측면 인전기준(54km/h 측면 충돌시 안전도)을 만족시킨 특수 보강재, 시트하단 특수 프레임

**성능이 더욱 커졌습니다.**

- 2방향에서 연료를 분사,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킨 2스프레이인젝터
- 최적의 연료량을 분사하여 효율적인 다중 연료분사기능
- 엔진고장시 즉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자체 고장진단기능
- 최첨단의 소음차단 설계로 쾌적함을 주는 NVH성능
- 엔진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공회전 속도 자동제어 기능
- 진동을 대폭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뉴형상 타이어

NEW SEPHERI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4000 1.500CC MT 55.1(4000), 1209 (13.9km/ℓ 25.1(14.1) 1,400-1,700cc)
- 4000 1.5 1000CC AT 45.1(4000), 1054 (13.5km/ℓ 23.1(14.1) 1,400-1,700cc)
- 4000 1.5 5000CC MT 55.1(4000), 1054 (13.5km/ℓ 23.1(14.1) 1,400-1,700cc)
- 4000 1.5 5000CC AT 45.1(4000), 1054 (13.5km/ℓ 23.1(14.1) 1,400-1,700cc)

※표준연비 시험방법: 단속, 단속을 하지 않음